대학생의 떡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섭취실태

주 선 영 · 이 강 희 · 양 은 숙 · 노 은 선 · 박 은 숙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떡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이나 현대에는 그 섭취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떡에 관한 선호도 및 섭취실태를 조사하여 우리의 전통식품인 떡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학생 41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회수율 90.2%)중 352부를 SPSS PC$^+$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남학생 190명(54.0%), 여학생 162명(46.0%)이었다. 대학생의 18.5%가 떡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38.4%가 떡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떡을 싫어하는 대학생은 5.4%에 불과하였다. 대학생의 떡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성별($p<0.05$ 수준)이었으며, 성장지, 전공, 가족 형태, 할머니와 동거 경험 여부,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어머니의 직업 유무, 가정의 경제 상태, 형제 수, 가족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떡의 선호도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대학생이 선호하는 떡의 종류는 꿀떡, 인절미, 백설기, 팥시루떡, 찹쌀떡, 바람떡(반달떡), 무지개떡, 송편, 약식, 개떡, 경단, 절편, 화전, 증편(술떡), 단자의 순이었다. 떡의 섭취빈도는 바람떡(반달떡), 약식은 $p<0.001$ 수준에서, 꿀떡, 백설기, 개떡은 $p<0.01$ 수준에서, 찹살떡, 경단은 $p<0.05$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명절이나 행사시 가정에서 떡을 만드는 대상자는 21.6%였으며, '주문하거나 산다' 71.0%, '준비하는 않는다' 7.4%였다.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는 방법이 대학생의 미래가정에서 떡을 준비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떡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대상자는 남학생 34.7%, 여학생 51.3%였다. 현대 감각에 맞게 떡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성별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남학생 53.7%, 여학생 72.2%가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남학생 42.6%, 여학생 25.9%였다.